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

2022년 공무국외출장 보고

[이탈리아 / 2022.12.22.~12.30.]



오 산 시 의 회

목 차

I. 출장개요	2
II. 출장국 현황	4
III. 출장일정	6
IV. 주요 출장내용	7
① 티볼리 의회	7
② 밀라노 스마트시티	11
③ 오르비에토 의회	14
④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	17
1) 폼페이유적	
2) 두오모성당, 시뇨리아광장	
3) 피렌체 재래시장	
4) 슬로우시티(오르비에토 성, 대성당)	
5) 바티칸박물관, 성베드로대성당, 친퀘테레	
V. 출장결과	31
① 총 평	31

2022년 공무국외출장 보고

I

출장개요

- ☐ 출장기간: 2022. 12. 22.[목] ~ 12. 30.[금] / 7박 9일
- ☐ 출장국가: 이탈리아
- ☐ 출장인원: 오산시의회 의원 6명, 의회사무과 직원 5명
- ☐ 출장목적
 - 국외도시의 선진행정 · 우수시책 · 수범사례를 비교 연수하여 의원 역량 강화 및 선진의정 구현
 - 국외도시의 지방의회운영, 교통정책, 도시재생 등에 대한 기관방문 및 벤치마킹 등으로 견문을 확대하고 시정 도입 및 제안으로 오산시 발전 도모를 위한 국외연수 실시
- ☐ 출장효과
 - 선진도시의 의회운영, 복지정책, 도시재생 등에 기관방문 및 벤치마킹 등으로 창조적 아이디어 습득 및 견문을 확대하고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시정 도입 및 제안으로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 출장분야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오산시의회	의장	성길용	· 공무국외출장 총괄
2		의원	이상복	· 슬로우시티 도시재생사업 정책 연구 · 선진 교통시설 견학 및 교통 정책 연구
3		의원	전도현	· 슬로우시티 도시재생사업 정책 연구 · 선진 교통시설 견학 및 교통 정책 연구
4		의원	송진영	· 선진 도시건축 및 경관 정책 연구 · 공유자전거 정책 연구
5		의원	조미선	· 자연환경 이용 관광형 사업 정책 연구 ·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사업 육성 연구
6		의원	전예슬	· 선진 도시건축 및 경관 정책 연구 · 공유자전거 정책 연구

□ 공식방문

일 자	장 소	소 재 지	비고
2022.12.23.	티볼리 의회	티볼리	
2022.12.26.	밀라노 스마트시티	밀라노	
2022.12.28.	오르비에토 의회	오르비에토	

※ 2022. 12. 27. 밀라노 요양원: 이탈리아 현지 중국발 코로나변이 확산으로 요양원 일정 취소됨(현장방문으로 일정변경)

□ 현장방문

일 자	장 소	소 재 지
2022.12.24.	폼페이	폼페이
2022.12.25.	피렌체 재래시장	피렌체
2022.12.27.	친퀘테레 해안열차, 마나롤라 마을	친퀘테레
2022.12.28.	슬로우시티	오르비에토
2022.12.29.	바티칸박물관, 성베드로대성당	로마

□ 이탈리아 기본현황



- 위 치: 유럽 중남부 지중해 연안 이탈리아 반도
(동경 12° 50' , 북위 42 40')
- 인 구: 5,887만 762명(2023 통계청, 세계25위)
- 면 적: 3,020만 6,800ha(2020 국교부, 세계71위)
- 수 도: 로마(ROMA)
- 종 교: 가톨릭 85.7%, 정교회 2.2%, 이슬람 2%, 개신교 1.2%
- 기 후: 지중해성 기후
- G D P: 2조 998억 8,020만 달러(2021 한국은행, 세계8위)
- 언 어: 이탈리아어
- 화폐단위: 유로(EUR)
- 정치·의회형태: 민주공화제, 내각책임제, 양원제
- 행정구역: 15개의 일반주(Regione)와 5개의 자치주(Regione Autonoma)

-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반도국가로 그리스와 함께 유럽문명의 기원지이다. 5세기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 국토가 분열되었다가 1861년 사르데냐 왕국에 의해서 통일되었다. 1946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이 된 이탈리아는 로마제국이 남겨놓은 문화유산과 미술, 음악 등이 발달한 문화 강국이다.

이탈리아공화국 국권의 최고기관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이다. 상·하원 5년 임기의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의회는 대통령을 임명하고 정부에 신임을 주며 대통령 및 각부 장관을 탄핵한다. 또 입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외에 선전, 총동원, 대사, 조약비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 점에서는 다른 의회제 국가와 동일하지만 양원의 권한이 모두 동일하며, 대통령 탄핵의 경우 양원 합동회의가 활용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

1956년 11월 24일 한국과 단독수교를 맺었으며 상호 상주공관이 설치되었다. 북한과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2000년 1월에 수교하였으며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를 따랐다.

이탈리아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열연강판, 냉연강판, 금속절삭가공기계 등이며,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가방, 신발, 의류, 의약품, 장신구 등이다.

로마에는 대사관(영사관 포함) 및 한국문화원이 위치해 있고, 밀라노에는 총영사관이 위치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일자	방문지역	시간	주요 일정	비고
12.22. (목)	인천 로마	14:05 19:35	인천국제공항 출발(비행시간 13h 30m) 피우미치노 국제공항 도착	KE931
12.23. (금)	로마	11:15 15:00	- 기관방문(티볼리 의회) - 선진 지방의회 운영실태 파악 및 분석 - 문화탐방(콜로세움, 개선문, 트레비분수)	
12.24. (토)	폼페이 아말피 나폴리 로마	10:00	- 문화탐방(폼페이 유적, 아말피 해안) - 화산 폭발로 인한 폐허의 유적만이 남아 있는 도시 탐방 - 세계3대 미항의 하나인 해안과 절경 탐방	
12.25. (일)	피렌체 베니스	10:00 15:00	- 문화탐방(두오모성당, 시노리아광장) - 천연자원 보존현황 문화유적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반영 - 현장방문(피렌체 재래시장) - 재래시장 비교 분석 활성화 방안 모색	
12.26. (월)	베니스 밀라노	10:00 15:00	- 문화탐방(탄식의 다리, 빅토리아엠마누엘) - 기관방문(밀라노 스마트시티) - 스마트 행정서비스 파악 및 분석 - 공공 자동차, 자전거(BikeMi) 공유시스템 등	
12.27. (화)	- 친퀘테레 피사	- 10:00	- 기관방문(Fondazione Sacra Famiglia 요양원) - 선진복지서비스 정책 견학(밀라노사립요양원) - 문화탐방(친퀘테레 해안열차, 마나롤라 마을, 피사 대성당)	현지사정 으로 취소 (요양원)
12.28. (수)	오르비에토	11:30 15:00	- 기관방문(오르비에토 의회) -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 분석 -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관련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의 비교시찰 - 문화탐방(오르비에토 성, 오르비에토 대성당) - 900년 역사의 세계 최초 슬로우시티	
12.29. (목)	로마	09:00 10:00	- 문화탐방(바티칸박물관, 성베드로대성당) - 로마인들의 문화 생활 중심지 탐방 - 피우미치노 국제공항 출발(11시간)	
12.30. (금)	인천 공항	17:00	인천국제공항 도착	KE932

1 티볼리 의회

- 명 칭 : Consiglio Comunale di Tivoli
- 소재지 : Piazza Del Governo, 1 - 00019 Tivoli
- 방문일자 : 2022.12.23.
- 연락처 : +39 0774 4531

□ 티볼리 현황



- 티볼리(Tivoli)는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 로마현에 위치한 코무네(Comune: 이탈리아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의 ‘시’에 대응되며, ‘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대도시 로마로부터 약 1시간 떨어진 북동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위치한 소도시이고 도심 북쪽으로는 사비니언덕에서 발원한 아녜네강이 흐른다.
- 면적은 69km²이고 인구는 약 5만여명이며, 인접 언덕에서 올리브와 포도를 재배한다. 주요산업으로는 관광업과 제지, 화학공업이 활발하다.
티볼리는 지중해성 기후로 건조한 여름과 시원하고 습한 겨울이 특징이다. 산과 계곡이 만나는 지형적인 특성 덕분에 고대부터 로마인의 피서지로 유명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 티볼리의 볼거리는 크게 빌라 그레고리아나(Villa Gregoriana), 빌라 아드리아나(Villa Adriana) 그리고 빌라 데스테(Villa d'Este) 세 곳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 빌라 데스테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명소이다.

□ 특 징

- 티볼리시의 인구는 5만여 명으로, 시의회 의원은 인구에 비례하여 5년마다 있는 지방선거에서 총 24명이 선출된다.
시의회 의장은 의원투표를 통하여 선출되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과 세금을 결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행정상의 감시와 통제를 하는 등 동등한 입장에서 시 집행부를 견제한다.
- 티볼리 시의회의 회기는 정례회/임시회가 있으며,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개최되고 임시회는 이사회가 결의하거나 의원수 1/3분의 요구에 의해 열린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의회를 운영해나간다.
- 시장은 만18세 이상 시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선출된 시장은 7명정도의 각종 분야의 특수인원(전문가)를 뽑아 집행부를 운영한다.
시의회에서 시장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투표를 진행하여 시장을 임기 중에 탄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행정기관은 이탈리아 법상 10만명이상이 아니면 행정구역이 나뉘지지 않는다. 모든 업무는 시에서 이뤄진다.
티볼리시의 공무원 수는 250여명이고, 개인업체이지만 티볼리시 소속업체로 등록되어있는 인원(100여명)까지 합하면 시집행 인력은 총 350여명이 된다.
이 수 또한 아직은 모든 티볼리시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 티볼리시의 1년 총 예산은 2022년 기준 약 5억 유로로, 약 60%가 의존재원, 40%가 자체재원이다.
- 티볼리시의 현재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환경문제, 도로(보수)문제, 대중교통, 복지문제가 있으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이탈리아 내 원전이 모두 폐쇄하였지만 다시 원전 시설 재검토 논쟁이 시작되고 이슈화 되고 있다.
- 시민들의 민원은 대중교통이나 복지 등이 비중이 높으며, 시의원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대응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 티볼리시는 도시 내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으나, 관광객들은 대부분 대도시 로마로 방문을 하고 있다. 티볼리시는 이러한 관광객의 대도시 쏠림현상에 대응하여, 로마 등 대도시로 연계되는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광객들이 시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티볼리시는 로마와 같은 대도시와는 차별되는 소도시로서의 특화된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도시는 오래전부터 쓰레기 소각장 부족,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관리의 한계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로마의 경우 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 악취 문제가 대표적인 도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티볼리시는 정부차원의 정책 외 추가적으로 주요구역 등의 차 없는 거리를 늘려 공기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 노력하는 등 소도시로서 상대적으로 도시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재활용률이 85%를 달성하는 등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 시사점

- 티볼리시는 대도시 근교의 소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자체적·특화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산시 또한 경기 남부권에서 수원, 화성, 평택 등 대도시 근방에 있는 소도시로서, 차별화되는 오산시만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먼저 관광분야에서 오산시만의 풍부한 관광자원은 그대로 활용하되, 근방의 대도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우리 시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주변 대도시와 연계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음의 환경분야에서 주변 도시에 비해 시의 면적이 크지 않음을 기회로 삼아 도시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는 오산시만의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티볼리시와 오산시 모두 추진하고 있는 차없는 거리를 더 많은 곳에서 추진하여 오산시 공기 질 향상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티볼리시의회 정문



티볼리시의회 의장과의 만남



티볼리시 부시장과의 만남



질의답변



기념품 전달



기념 촬영

② 밀라노 스마트시티

- 명 칭 : 밀라노 스마트시티
- 소재지 : Via Pantano, 9 - 20122 Milano
- 방문일자 : 2022.12.26.
- 연락처 : +39 349 1248210

□ 현황 및 특징



- 밀라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유 교통 수단 서비스의 종류는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와 자전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용 형태에 따라서 station-based와 free-floating으로 구분된다.
고정형 정류장(station-based)는 특정 정류장에 가서 자동차, 자전거 혹은 스쿠터 등을 대여하고 반납할때도 특정 장소에 정류장을 찾아서 가야한다.
그에 반에 자유로운 정류장(free-floating)은 길가에 놓여 있는 자전거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대여하고 특정한 반납 장소 없이 편한곳에 반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GPS와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식이다.
- 현재 밀라노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민간부분 자동차 및 자전거 공유 서비스 운영 회사가 약 3,000대 이상의 자동차와 4,800대의 자전거가 밀라노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이로써 밀라노는 이탈리아 내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공유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공공부문으로 밀라노 시에서도 시 차원의 공공 자전거 공유 시스템(BikeMi)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12월 게시된 이래 현재 320개의 정류장, 총 5,430개의 (이중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좌석이 부착된 모터 자전거) 공유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 더불어 BikeMi 서비스는 밀라노 시내 대중교통 서비스는 단순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넘어 기존 버스, 트롤리 버스, 지하철, 트램 서비스와 완벽히 연동된 대중교통 시스템의 한 차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 ATM 연간권이 있다면 BikeMi 연간권 결제에 할인 혜택이 있는 등, 간편히 ATM 교통카드와 BikeMi 이용권을 연동할 수 있다.

□ 시사점

- 도시의 공유 교통수단의 장점은
 1. 이용자 입장에서는 교통수단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시민들은 사용하기 위한 요금만 지불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2. 자동차의 경우 교통 제한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 활용도를 높였고 일부 구역에서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전거의 경우 GPS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없으며 체인과 자물쇠 등 보안 장치도 필요하지 않다.
- 밀라노 당국은 오픈스트리트 계획을 세우고 밀라노 대부분의 도로에서 제한속도 50km에서 30km로 낮추고, 자전거 BikeMi를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휴식 공간을 만들고 지속가능하고 오염되지 않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산시 또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정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도시 이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공유지를 차지하고 곳곳에 고속도로로 만들기보다는 시민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도시의 다양한 공유 교통수단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출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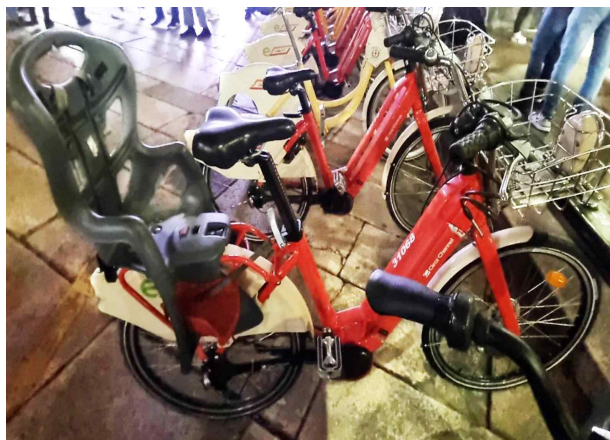
방문사진



공유서비스(애플리케이션) 이용 체험



시설물 현황(전기자전거 포함)



어린이 동반 공유자전거



시설물 현황(전기자전거 포함)



공유자전거 이용 체험



기념 촬영

③ 오르비에토 의회

- 명 칭 : 오르비에토 시의회(Giunta Comunale Orvieto)
- 소재지 : Piazzadel Campidoglio 00186 Roma
- 방문일자 : 2022.12.28.
- 연락처 : +39 07 633061

□ 오르비에토 현황



- 이탈리아는 주, 현, 시로 분류.
- 오르비에토는 이탈리아 움브리아주 테르니도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 281.16km²의 면적에 약 2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96 km 떨어진 팔리아강과 키아나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해발고도 195m 바위산에 위치

- 1970년 6월 지역선거를 통해 지역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1974년 5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를 제도화함.
- 이탈리아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고, 이탈리아 상원은 200석, 하원은 400석이며 지방선거는 5년마다 실시함.
- 주와 현의 역할이 구분되어 예산도 구분되어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에서 지방 재정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통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 질문 및 행정 사무감사 등으로 행정의 감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
- 1999년 슬로시티 운동을 처음으로 선언하고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의 뜻을 가진 치타슬로의 느낌의 철학을 실천.

□ 특징 및 시사점

- 예산편성은 인건비, 교육, 전통문화 보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체계는 초등 5년(6~10세), 중등 3년(11~13세), 고등5년(14~18세), 대학 3~5년제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2년까지는 의무교육임.
- 대학 학비는 일정 소득까지는 무료이며, 소득별 기준표를 만들어 개인별 부담액이 달라 경제력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가 없고, 유급제도의 실시로 철저한 학생 개인의 자기 주도성에 기반하여 학습하도록 체계를 구현. 우리나라도 유급제도 도입을 고민하여 평가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 간에 성취동기를 제고시켜 학생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 됨.
- 이탈리아는 이민자 유입 증가에 따라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 소속한 국가로서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민자(난민 포함) 자녀의 언어교육에 주력했으나, 이주민과 정주민 사이의 통합에 한계를 느낌. 1990년대 이후 언어 및 문화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상호문화교육’ 정책을 추진.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융합할 수 있고 자국민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다문화주의와 구별된 상호문화주의를 정책 이념으로 설정하여 한국 시민, 세계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주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 보건의료의 재원은 조세이며,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며, 주치의에 의한 일차 진료 이후에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 필수 의료서비스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며, 동물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건강까지도 필수 의료에 포함. 대부분 보건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나,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약품비 일부, 전문의 외래진료 및 검사, 응급상황이 아닌 응급실 진료)
- 슬로시티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생산품을 이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오산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오산시 관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안 필요.
- 이탈리아는 지역의 분권적 통치와 자치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문화 또한 지역적 다양성과 특성을 보임.

○ 출장사진

방문사진



오르비에토 시의회 방문



오르비에토 설명



오르비에토시 현황 설명



슬로시티 국제 연맹 로고



오르비에토 시의회 내부



오르비에토 전경

■ 폼페이 유적

- 명 칭 : Scavi di Pompei
- 소재지 : Viale delle Ginestre, 80045 Pompei NA
- 방문일자 : 2022.12.24.

□ 현황 및 시사점



-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어왔던 폼페이는 서기 69년의 지진과 서기 79년 일어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하여 자연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다. 16세기 말 건축가 폰타나(Domenico Fontana)는 부서진 건물과 명문, 주화 등을 발견했으나 이곳이 폼페이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라질 뻔한 폼페이는 1738년 고고학 발굴 작업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 폼페이로 들어가는 관문인 마리나 문(Porta Marina)을 들어서면 2천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라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계획적인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안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도시였으며, 유적지 입구에 들어서면 마차가 이동하는 도로와 인도 두 곳으로 구분되어 있다.
- 오늘날의 신도시처럼 폼페이는 계획도시로써 도시 전체를 반듯하게 나눠놓았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그 아래에는 완벽한 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대형 원형극장과 경기장, 상점은 물론 허가 받은 매춘 업소까지 있었다고 하니 다시한번 폼페이가 얼마나 번성한 부유도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 폼페이 거리의 거주민이 사용했던 식수대는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아 닿아 있었고, 그시대 상수도를 사용했다는 로마인들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

- 마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중간중간 하얗게 보이는 돌들을 박아 놓았는데 이것은 밤에도 달빛에 반사되어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야광석이라고 한다.
또한 도로에는 중간중간 건널목처럼 사람이 도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형태로 여러개의 돌을 놓으므로 사람과 마차가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 폼페이 곳곳에는 “REG. VII. INS. IV” 식의 주소가 적혀져 있었으며, 그림을 통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누가 사는지 등 표시를 했다고 한다.
당시 주방 시설도 갖춰져 있었으며, 상가 앞의 길에는 마차를 묶어 놓을 수 있는 흙을 만들어 마차가 정차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2천년 전의 빵집의 화덕과 맷돌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당시의 주식인 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폼페이 목욕탕은 남탕/여탕, 냉탕/온탕이 구분되어 있고, 옷을 보관할 수 있는 탈의실은 칸칸마다 새겨져 있는 조각상을 달리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했으며, 천장은 돔 형태로 사우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또한 도시의 원형극장은 전체적으로 반원형이며 객석과 무대가 갖춰져 있다. 몇천명이나 수용 가능할 정도의 규모가 크고, 가운데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 폼페이는 약2천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놀라운 시설물이 많았다. 시설물 하나하나가 그시대 로마인의 놀라운 지혜가 엿보였다. 상하수도 시설부터 다양한 문화시설, 건물 구석구석 화려하고 수준 높은 건축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 폼페이 문화재 관리국은 현재 무분별한 발굴보다는 보존과 공감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 남아있는 유적에 대한 정보를 멀티미디어나 3D로 실감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방문 관람자 조사를 통하여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역사를 토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 이에 오산시도 문화관광산업을 개발함에 있어 사회적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함에 있어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등을 통하여 방문객을 이끌고 유적에 생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바실리카



포룸광장



원형극장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 유적지 시설물 탐방



폼페이 유적지 시설물 탐방



마차가 다니는 길과 인도의 구분



기념 촬영

■ 두오모성당 / 시뇨리아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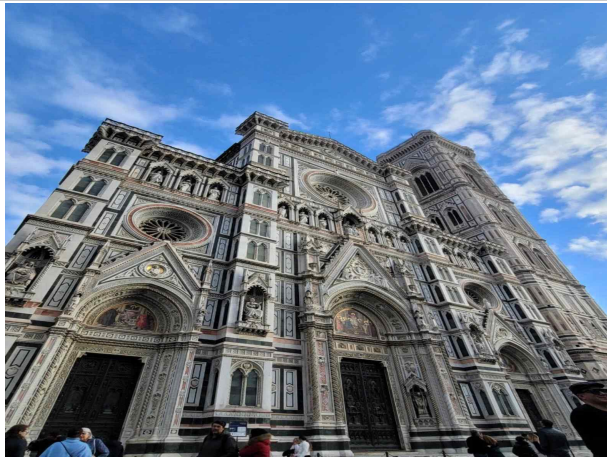
- 명 칭 : Duomo di Firenze / Piazza della Signoria
- 소 재 지 : Piazza del Duomo, 50122 Firenze FI
/ Piazza della Signoria, 50122 Firenze FI
- 방문일자 : 2022.12.25.
- 연 락 처 : +39 055 230 2885

□ 특징 및 시사점

-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피렌체 역사지구 전체가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피렌체, 그곳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두오모 성당과 시뇨리아 성당이다.
- 두오모 성당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랜드마크이자 르네상스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며, 15세기에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돔으로 유명하다.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로,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는 로마 산피에트로대성당, 런던 세인트폴대성당, 밀라노 대성당에 뒤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이다.
- 두오모 성당은 1296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유물인 이 성당을 오페라 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우리 재단이 7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정비해왔다. 두오모 대성당은 유적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 보존한 대표적인 예이다.
- 시뇨리아 광장은 중세 이후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였다. 이곳은 피렌체 공화국의 기원과 역사의 핵심이며, 여전히 도시의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에는 시청사로 쓰이고 있는 베키오 궁전, 피렌체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우피치 미술관이 있다. 1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벵투누스 분수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 도나텔로의 사자상 등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여러 조각상들을 만날 수 있다.
- 긴 시간 철저한 보존과 관리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전세계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두오모 성당과 시뇨리아 광장이다. 이와 같이 오산시도 역사문화유적을 관리함에 있어, 유적지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찾아 보존해 나간다면 뛰어난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관광객들에게 호기심, 매력, 관심을 생성하기 위한 관광수요의 목적을 위해 보존하고 지켜낸다면 그것은 도시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 출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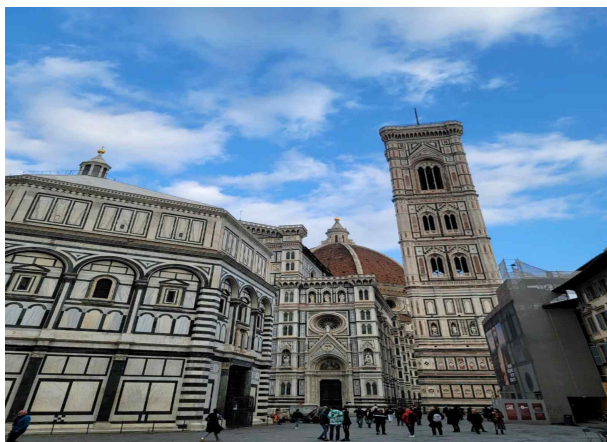
방문사진



두오모 성당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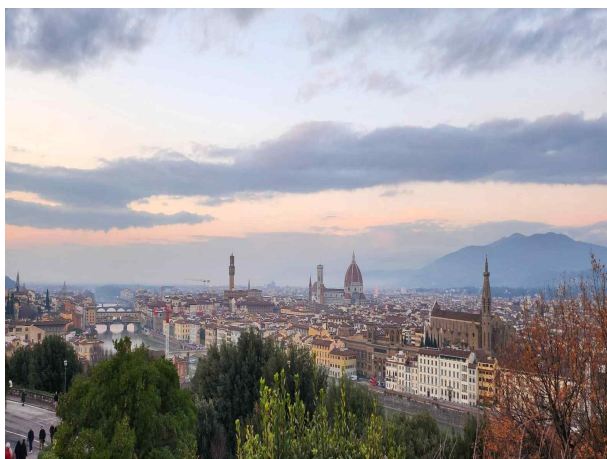
두오모 성당 측면



조토의 종탑



돔이 돋보이는 두오모 성당



고지대에서 바라본 두오모 성당



시뇨리아 광장

■ 피렌체 재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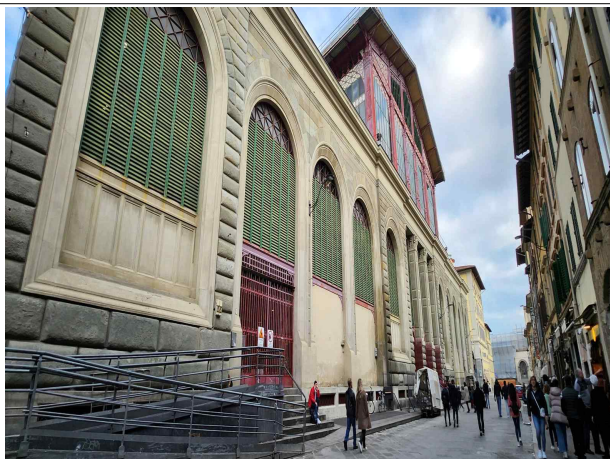
- 명 칭 : Firenze Centrale Mercato
- 소 재 지 : Piazza del Mercato Centtrale, Via dell' Ari
- 방문일자 : 2022.12.25.
- 연 락 처 : +39 06 5185 8230

□ 특징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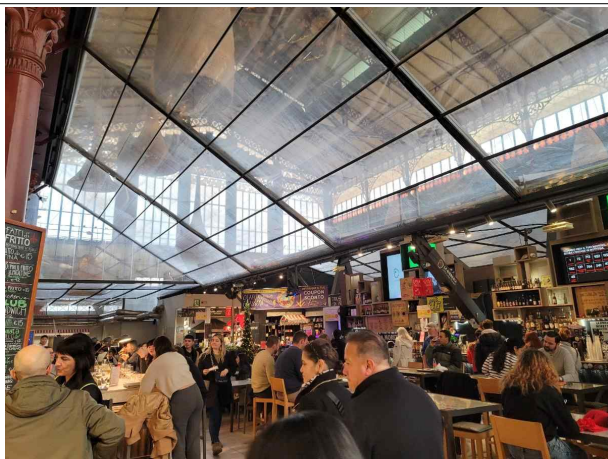
- ‘중앙시장’으로 잘 알려진 피렌체 재래시장은 1874년에 지은 우뚝 솟은 주철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의 입구는 외부 거리를 따라 늘어선 산 로렌조 시장의 가판대 때문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산 로렌조 가판대에는 공예품, 가죽, 의류, 신발, 기념품 등이 있다.
- 중앙시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추가 운영한다.
- 시장 내부에는 토스카나 요리의 주요 재료에 전념하는 무수한 상인들이 있다. 1층에는 족발부터 머리와 발이 붙은 통닭, 거대한 우윳빛 내장, 토끼, 멧돼지, 스테이크, 소시지 등 모든 종류의 정육점이 있다. 또한 치즈, 절인 고기, 올리브 및 기타 조제 식품을 제공하는 미식가와 빵, 파스타, 와인 및 기타 식료품 품목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찾을 수 있다.
- 2층은 최근 리뉴얼을 통해 대형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렌체식으로 조리한 곱창, 수육 샌드위치와 버거를 판매하는 Nerbone 레스토랑이 특히 유명하다.
- 최근 시장의 리뉴얼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1층은 재래시장 느낌의 분위기이지만 2층은 현대식 푸드코트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 피렌체 중앙시장과 같이 오산의 오색시장도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정체성은 살리면서 리뉴얼(물리적 시설개선 사업 및 시스템 향상)을 통한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현대식 중앙시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재래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계속적인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오산 오색시장의 ‘야시장 수제맥주 축제’처럼 기존의 재래시장 뿐만아니라 남녀노소 다양한 소비층을 모두 어우를 수 있는 오산만의 문화컨텐츠를 만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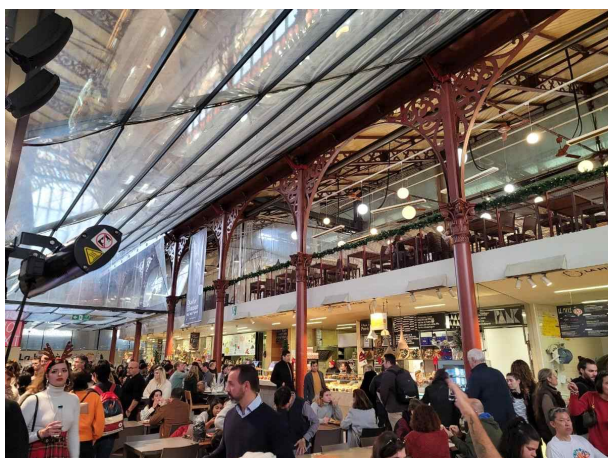
중앙시장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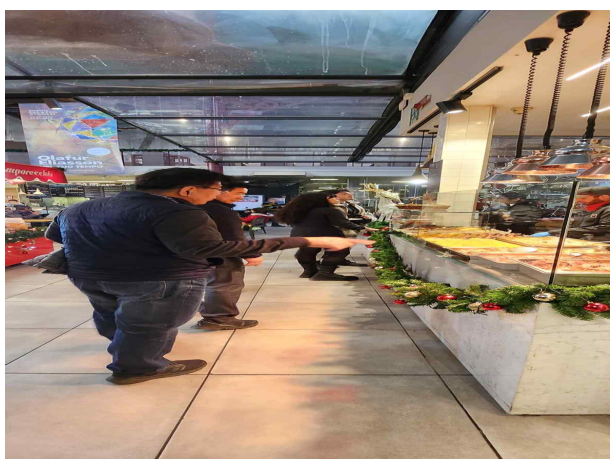
재래시장 이용객



시장 먹거리



시장 풍경



시장 탐방



기념 촬영

■ 오르비에토 두오모 성당, 알보르노즈 요새, 산 파트리치오 우물 (슬로우시티)

□ 특징 및 시사점

- 오르비에토 성당은 본당과 2개의 측면 통로가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설계되었으나, 건축가 우구치오네 조반니가 건축가 베비냐트 형제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이탈리아 고딕 양식으로 변형함. 3세기를 거치면서 고딕양식의 첨탑을 추가로 지었고 현재의 오르비에토 성당이 완성됨.
- 성당 전면 외벽에 33개의 조그만 건축물과 152개의 조각품, 90점의 황금색 모자이크 그림이 장식되어 있음.
- 성당 정면 하부에는 「천지창조」에서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신·구약성서>를 주제로 한 부조(浮彫)의 4개의 석주가 있고, 중앙의 문 위에는 안드레아 피사노의 성모상이 있으며, 상부에는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조각(彫刻)으로 장식.
- 알보르노즈 요새는 1354년경 메디치 가문 출신의 에기디오 알보르노즈 추기경이 이끄는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함. 요새와 성벽은 하나의 대문과 해에 둘러 쌓여서 상하로 올리고 내리는 다리로만 오르비에토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1395년에 파손되어 5세기 중반에 재건축 공사. 오르비에토는 화산암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적으로 외부 침입 시 방어가 쉽지만, 물의 공급원이 없기에 산 파트리치오 우물을 설계.
- 산 파트리치오 우물은 1527년 프랑스와 연합한 카롤 5세의 황제군사에 의한 로마약탈 당시 로마에서 피난 온 피렌체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인 클레멘스 7세에 의해 도시가 적에게 포위될 것에 대비해 만들어 짐. 1527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0년 만에 완공.
폭 13.4m, 깊이 62m의 우물 안에는 나선형 계단이 돌리어져 있고, 정 반대 방향에서 우물 아래로 연결되는 내려가는 문과 올라오는 문으로 구분되어 짐을 싣고 나를 때 나귀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행을 제공. 아일랜드 가톨릭 성인인 성 패트릭이 기도하자 땅속 깊은 곳의 연옥을 보았다고 하여 성 패트릭의 우물이라고도 불림.

○ 출장사진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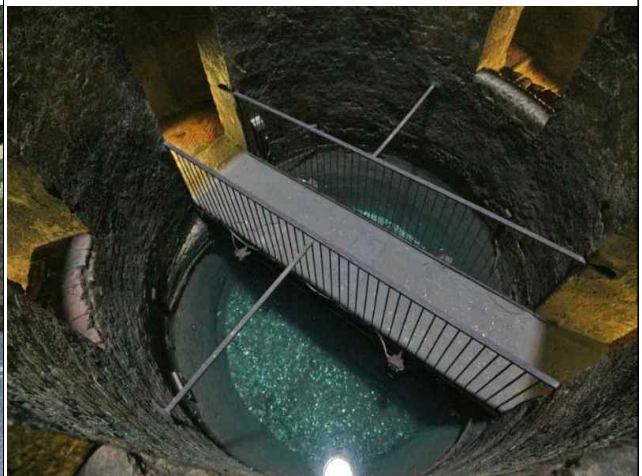
오르비에토 성당



오르비에토 대성당 내부



오르비에토 파트라치오 우물



오르비에토 파트라치오 우물



엘보르지아나(성채)



기념 촬영

■ 바티칸박물관, 성베드로 대성당, 친퀘테레

- 명 칭 :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 대성당 / 친퀘테레
- 소재지 : 바티칸시티 / La Spezia

□ 특징 및 시사점

- 바티칸시티는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있는 가톨릭 교황국. 세계 가톨릭의 본산으로 성베드로 사원과 바티칸 궁전 등이 있으며, 교황이 거주. 지명은 '신탁을 받은 언덕'이라는 뜻. 바티칸시티에서는 교황이 원수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며, 교황청은 전세계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중앙 기관임.
- 교황청의 재정은 세계의 신도로부터의 헌금과 라테라노 조약에 의한 배상금의 적립금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당.
- 바티칸은 전 세계에 정치적·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류의 단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 바티칸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르네상스의 걸작 등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바티칸 시내에 위치. 1층에는 각종 그림을 모아 놓은 회화 전시관, 피오 클레멘티노 미술관, 이집트 전시관, 키아라 몬티미술관, 시스티나 성당이 있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 등의 대가들이 남긴 걸작, 르네상스 회화 역대 교황들이 수 세기에 걸쳐 수집한 막대한 미술 작품들이 있음.
- 작품에 따라 자연채광 차단, 자연채광 유입, 인공조명과 자연채광 병행 등 다르게 조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빛은 통과시키고, 보호막을 통해 UV는 차단하여 미술품을 보호하고 있음.
- 소화기는 관람객이 보기 쉽게 전시실 및 통로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화재 예방시설(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등)은 찾아볼 수 없었음.
- 건물의 구조체 결함(균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유리에 균열 발생 시 건축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관람객 편의를 위해 유물의 모양과 재질을 느낄 수 있도록 유물 설명 부분에 동일한 재질의 모형을 제작하여 모양을 형상화하였으며, 전시관 이외 모든 시설도 접근이 가능 하도록 점자 등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였음.
- 성 배드로 대성당은 펄스로드 디바이스가에 위치하며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미켈란젤로의 설계에 의해 재건 됨. 다운앤코너 주교관구에 속하는 로마 가톨릭성당으로, 1860년에 착공하여 1866년 완공되었음. 초기에는 제레미아 매컬리가 설계를 맡았고, 1862년부터는 존 오닐이 승계하였고 1880년대 이후부터 제2차세계대전 후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 친퀘테레는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 주에 위치하는 라 스페치아 지방의 5개 해안마을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총면적 800 만m²이상, 약6,000km길이의 돌벽,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단식 밭을 조성하여 생겨난 인공적인 풍경으로 관광자원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 인프라의 구축이 전무 하여 상당한 불편을 안고 살아감. 이는 획일적인 도시계획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적 의식 수준이 높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 됨.
오산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보존 가치를 지닌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 등을 위해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 출장사진

방문사진



성베드로 성당 내부



성베드로 광장



성베드로 광장



바티칸 박물관



친퀘테레



기념 촬영

■ 선진도시 시설물 현황



배수구 맨홀 모양



배수 원할 인도 정비



배수 원할 도로 정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구역 설정



도심 내 차량 진입금지대



음식물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거치대



공유 서비스 이용 시민



계단 바닥재(고무바닥 매트)



도심 내 트램



열차 내 손잡이 겸 물건걸이대



도심 소형 청소차

1 총 평

-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로마시대의 방대한 문화유적을 발판으로 세계 3~4위권의 관광수입을 올리는 이탈리아는 고대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잘 보존해 왔다. 도로가 좁으면 좁은대로 어떠한 개발사업도 문화재 보존에 우선할 수 없으며, 굳이 복원하려 하지 않고 발굴 및 보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고 바람직해 보였다.
- 문화유산의 보존을 우선시 하다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통분야였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특성상 개발사업의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도로는 좁고 복잡했다. 이에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고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대중교통, 공유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넓은 고속도로 확충, 도로확장 등 개발 중심의 우리나라의 정책들과 대비해 이곳은 보행자 중심으로 서두름 없이 느긋함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었다.
- 이탈리아의 어느 지역의 어느 장소이든 제대로 된 간판을 볼 수 없었다. 화려한 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도시 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물과 어우러져 설치된 간판들은 건물을 더 멋스럽게 보이게 했다.
- 한가지 도심에서 불편했던 기억은 도심 거리에서 아직도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었다. 실내 일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흡연이 가능했으며, 이탈리아의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부분은 비흡연자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문제인 것 같다.

- 우리가 방문한 이탈리아 내 지방 소도시 의회는 나라와 규모, 정책 모두 오산시와는 많이 다른 환경이지만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일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모두 한마음 같았다.
- 티볼리, 오르비에토 지역은 대도시 근방에 위치한 소도시지만, 그곳만의 정체성을 살려 자체적인 의정활동 및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산시 또한 경기 남부권에서 수원 화성 평택 등 대도시 사이에 있는 소도시로써, 도시 규모적 한계를 극복하고 오산만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 근방의 대도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우리 시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주변 대도시와 연계하는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 오산시의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되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미래 세대와 함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오산시의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탈리아의 지방분권의 제도화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행정 집행을 보면서 오산시의회도 지방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 문화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방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